

글로벌 거버넌스의 위기와 포스트-코로나 대응 전략

김태균 |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

코로나19와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

- 새로운 뉴노멀: B.C./A.D.와 유사한 강도의 충격
 - 탈세계화로의 퇴행, 국민국가로의 회귀, 미국의 사회 시스템의 부실화, EU의 무력화와 중국의 역할 강화, 한국 등 동아시아 강소국의 등장, 자유주의의 쇠퇴와 우파 국가주의의 강화?
- 민족국가로의 회귀 VS. 새로운 글로벌리즘의 대두
- Orientalism VS. Occidentalism: 미중 간 문명의 충돌
- 경제성장 VS. 친환경적 성장
- 국제정치의 힘에 기반한 현실주의적 글로벌 거버넌스 VS. 상호관계 중심의 사회학적 글로벌 거버넌스
- 계몽주의적 시장민주주의 VS. 생태학적 시장민주주의
- 민주주의 VS. 권위주의 프레임의 변화
-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그 전 방식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집단 발생 가능성

마스크 사용에 대한 서구의 항복



공격적인 민족
주의의 부활?



FT.COM

Nationalism is a side effect of coronavirus

The pushback against globalisation will come from protectionists, national-...

뭣이 중헌디?



CARNEGIEENDOWMENT.ORG

Do Authoritarian or Democratic Countries Handle Pandemics Better?

다시 돌아가지
않는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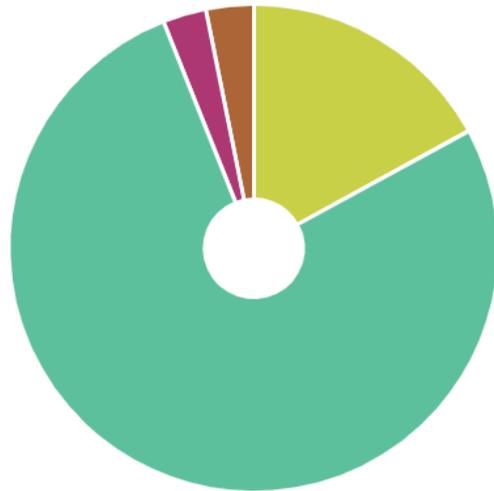
ODI.ORG

Covid-19: 'we won't get back to normal because normal was the problem'

글로벌 거버넌스의 실패

- 코로나-19 대응 과정에서 보여 준 세계보건기구(WHO)의 무기력 및 대응 시기의 실패?
 - 중국 최초 보고 이후 코로나-19 공식확인 기간: 44일
 - 중국 최초 보고 이후 SARS 공식확인 기간: 63일
- 글로벌 거버넌스(UN 체제)의 구조적인 문제:
 - 글로벌 거버넌스를 움직이는 자본의 힘: 공공재 제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사유재 추구
-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글로벌 책무성(global accountability)의 혼재 또는 부재 현상
- 책무성이 없는 글로벌 거버넌스는 결국 자신의 보호자는 민족국가라는 인식의 확장
- 재정상 종속상태는 국제기구의 독립성 보장 실패
 - 실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UN 기구 평균 9~15% 미만: WFP의 경우 총 80억 달러(한화 9조7천억) 중 4억2천만불, 즉 5.2%정도가 core fund인이고 94.8%가 none-core임.
 - 실제 긴급상황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국제NGO 또는 Global Fund가 UN기구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큼.
- 글로벌 불평등 현상의 가속화

Funding by fund type



- Assessed contributions
- Specified voluntary contributions
- Core voluntary contributions
- PIP Contributions
- Projected funding*



Funding by contributor

UPDATED UNTIL Q4-2019

- All Contributors

 Assessed contributions	956,900K
 Specified voluntary contributions	4,328,058K
 Core voluntary contributions	160,592K
 PIP Contributions	178,053K
 Projected funding*	0
Total	5,623,603K

* Projected can be either core voluntary or voluntary specified

새로운 재난 프레임워크를 위하여

- 효고 프레임워크
- 센다이 프레임워크
- 일본의 리더십 상실
- 신종 감염병과 팬데믹을 대응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 필요
- 대구 프레임워크 또는 제주 프레임워크 주창을 통해 한국의 경험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구축이 필요

글로벌 책무성을 위하여

- 새로운 다자협력의 규칙과 거버넌스의 구조를 개혁
- 빈곤국, 취약국, 분쟁지역의 피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다자협력 필요
- 생태복원적 통치성(Governmentality) 강화
- 지구적 균축으로 포스트-코로나 시대 비용 확보
- 한시적으로나마 경제제재 해제
- **Participatory Governance and Public Discussion (A. Sen)**

제3의 길을 찾아서

- 한국의 역할
 - (가칭) 대구프레임워크 수립의 주도적 역할
 -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적 참여
 - 빈곤국/취약국을 위한 인도적 지원 및 ODA 주력화
 - 국가주의로의 퇴보를 저지할 수 있도록 민주적 참여와 인권 중심접근법을 토대로 글로벌라이제이션 2.0의 도모
 - 국제기구의 재정구성에 관한 혁신안
 - 민주주의 vs. 권위주의 대결프레임을 벗어난 감염병 사전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델
 -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신종감염병 협의체 구축